

임응식 스크랩북 및 녹화물 총 목록집 해제

김 소 희 /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연구원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자료집 제9호는 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고 임응식(林應植, 1912~2001) 선생의 스크랩북 및 방송 녹화물의 목록을 총정리한 것이다. ‘임응식 스크랩북’은 선생이 사진활동을 시작한 1930년대부터 2000년까지 본인 관련 자료는 물론이고, 한국사진사 자료를 수집해 정리한 서른세 권의 바인더를 말하며, ‘녹화물’은 선생이 TV와 라디오 등에 출연한 영상, 음성 기록물을 일컫는다.

스크랩북은 2011년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분관에서 열렸던 전시회, 《임응식-기록의 예술, 예술의 기록》(2011.12.21~2012.02.12)을 준비할 당시, 선생의 장남인 임범택 씨에 의해 외부에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이 사료들은 선생의 사진 인생 70년의 기록들을 포함해, 그가 함께한 동시대의 사진전 팜플릿, 행사자료, 그리고 사진 관련 기사 및 기타 문건들을 수집한 것으로, 고인의 유품으로 남아있었다. 선생은 그것들의 출처를 상당 부분 명시했으며, 원칙적으로 날짜순에 따라 차례로 정리해 나갔고, 그 분량은 스크랩북 형태로 총 서른세 권에 이르렀다. 2013년 3월, 한국사진문화연구소는 유족으로부터 이 스크랩북 일체를 구매했고, 이후 추가로, 선생이 TV와 라디오에 출연한 방송 녹화물 그리고 선생의 작품 이미지를 수록한 CD를 구매하게 되었다.

이 스크랩북에는, 임범택 씨가 작성한 목록리스트가 있었다. 그러나 이 리스트는 자료의 제목, 날짜, 매체 등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정보만을 기재하고 있어서, 다양한 자료들의 개별 특성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한국사진문화연구소는 스크랩북에 수록된 각 자료의 정보를 구체화하여,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는 총 목록집 제작을 기획하게 되었다.

서른세 권의 스크랩북은 형태에 따라 크게 세 종류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SCRAPBOOK’이라 적힌 검은색 합지 스크랩북 형태로, 1권부터 19권까지 총 열아홉 권이 이에 해당한다. 이것들은 가장 크고, 두꺼운 3권(42.5(세로)×38(가로)×8.3(두께)cm)을 제외하고는, 모두 34.3(세로)×29(가로)cm의 동일규격 링 혹은 실 바인더이며, 두께는 다소 차이가 있다. 선생은 기사 종류나 사진 등 낱장 자료의 경우, 필요한 부분이나 전체를 대지 위에 부착했고, 두 장 이상의 자료는 스테이플러 혹은 테이프를 이어 붙인 후 부착했다. 여기에서 선생은 스크랩북을 세 종류의 범주, 즉 ‘한국사진사 자료’(1권~12권), ‘임응식 기사’(13권~18권) 그리고 ‘사진·미술 자료’(19권)로 구분한 후, 연도별로 배치했다. ‘한국사진사 자료’는 사진전시 관련 자료가 중심이며, ‘임응식 기사’는 선생과 관련된 기사자료 중심이다. 그러나 두 범주가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왜냐하면 ‘한국사진사 자료’ 역시 선생과 연관된 활동이 다수였고, 아울러 선생

은 거의 전 방위적으로, 오랫동안 한국사진사의 핵심인물로서 활동했기 때문이다. 스크랩북의 연도분류 역시 마찬가지였다. 1950년대로 표기된 스크랩북에는, 1970년대 혹은 1980년대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 권별로 분류된 연도와 수록 자료는 적지 않은 시차를 보였다. 이는 시간 순서대로 정리된 스크랩북에, 차후에 새로운 자료들을 보탬거나, 일부 자료들의 항목 분류를 바꿨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임응식 기사’는 2권과 3권이 누락된 1권과 4권만 수집되었다.

스크랩북 최초의 자료는 1934년 2월 「A 부(部) 준특선, 입선 목록」(매체 미상) 기사로, 여기에는 선생의 특선 작품, <초여름 교외>의 기록이 있으며, 최후의 자료는 2000년 3월 10일 자 『한국사진신문』에 실린 「홍순태 교수 정년퇴임식」 기사이다. 기록상 가장 오래된 자료는 1929년 9월 26일 자 『동아일보』에 실린 「최초로 사진 박힌 경성시가전도」 기사 일부로, 기사 사진만 복사한 것이다. 1938년 《제5회 조선사진전람회》 입선자 발표 기사 이후, 1939년부터 1945년 해방되던 해까지, 7년간의 자료는 전무하다. 이 시기는 선생이 부산 체신국에서 근무한 시기로, 사진활동에 관한 어떤 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 이를 제외하면, 1934년부터 2000년까지, 선생의 사진자료는 꾸준히 스크랩 되어 있다. 권별로, 연대와 주제어를 간략히 살펴보면, 1권은 가장 오래된 자료로, 1930년대 강릉사우회 활동부터 일제 강점기의 현상모집 공고문, 해방 후의 《합동예술사진전람회》, 1950년대 한국사진작가협회 활동 등 사진계의 변모를 담고 있다. 2권부터 12권은 1948년부터 1975년, 그리고 1982년의 전시 홍보물이다. 전시 팸플릿, 도록, 목록집, 공모전 수상집, 그리고 초청장 및 엽서 등의 각종 인쇄물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2권과 3권에는 1940~50년대의 희귀자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는 1948년 8월에 열린 임석제의 첫 개인전 팸플릿이 있다. 아울러, 현 일영, 최민식 등의 개인전 팸플릿과 1950~1970년대 활동한 아마추어, 직장, 학생 동우회나 사진 단체의 전시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다. 6권은 주로 《국전》의 목록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13권과 14권은 1950년대 《인간가족전》에서 1970년대 《동아국제사진살롱》에 이르는 20여 년간의 사진계 주요 이슈와 1970년대 각종 공모전, 선생의 심사평 및 출판물 관련 기사가 중심이다. 1980년~2000년까지 선생 자료를 포함한 한국 사진사 자료는 주로 15권부터 19권에 배치되었고, 17권은 선생이 신문에 연재한 회고록만을 모으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은 20.4(세로)×26.5(가로)cm 규격의 실 제본 형태로, 국내 사진 잡지에서 발췌한 기사들만 엮어 놓았다. 선생의 기고문을 포함하며, 20권부터 28권까지 총 아홉 권으로 정리했다. 권마다 ‘현대 세계 사진 사상’(20권), ‘사진과 회화’(21권), ‘한국의 사진사’(22권), ‘작가와 작품, 외국’(23권), ‘사진을 빛낸 위대한 사진가’(24권), ‘작가와 작품, 국내’(25권), ‘컬러 사진 촬영’(26권), ‘사진의 특성과 사진론’(27권), ‘위대한 현대사진가’(28권)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이처럼 주제별로 모은 기사들은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단』, 『사협』, 『영상』, 『포토그래피』, 그리고 『월간사진』 등에서 일정 부분 출처를 확인할 수 있었고, 대부분 1980년대 초·중반에 게재된 글이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6.7(세로)×23.5(가로)cm 규격의 바인더로, 29권부터 33권까지, 총 다섯 권으로 이뤄진다. 29권의 제목은 ‘컬러사진·사진기법’이며, 일본 사진 잡지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만을 스크랩했다. 그러나 매체와 발행연도를 기재하지 않았다. 30권부터 33권은 사진이론 및 기법들을 주제별로 작성한 육필 노트이다. 각 권은 주제에 따라 작성되었는데, 30권은 ‘사진이론’을 총 여덟 권의 노트로, 31권은 ‘사진 테크닉’을 총 네 권의 노트로 다루고 있으며, 32권은 총 다섯 권의 노트로 ‘사진미학’을 정리했고, 33권은 ‘사진 개론 및 기타’로, 총 247장을 한 권으로 묶고 있으며, 여기에는 1960년 10월호 『아사히카메라(ASHAHI CAMERA)』와 1962년 3월호 『예술신조(藝術新潮)』 등 참고 문헌의 출처를 표기하기도 했다. 이 노트의 내용은 선생이 1970년대에 집필한 것으로 보이는 강의록, 『PHOTO-TEXT VOLUME.1』의 목차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따라서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 위의 자료들을 수집·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생의 육필 노트는 정확한 작성연도를 알 수 없다.

스크랩북 이외의 자료로는, 선생이 방송매체에 출연한 영상 및 음성 녹화물로, 베타맥스 비디오테이프 다섯 개, VHS 비디오테이프 열한 개, 오디오 카세트테이프 열세 개, 그리고 선생의 작품사진 CD 한 장이 있다. 영상은 1981년 KBS 방송에 출연한 것을 시작으로, 1982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임응식 회고전》의 개막식 광경, 그리고 강의 모습 등을 담고 있다. 영상물은 대부분 자전적 회고담이나 한국사진사 관련 내용이며, 1997년까지 담고 있다. 음성 녹화물은 라디오 매체에 출연한 것으로, 녹음은 선생 본인이 직접 하거나 가족이 하기도 했고, 때로는 녹음 내용과 출처를 직접 구술로 녹음내용 뒤에 덧붙이기도 했다. 선생은 각각의 테이프 겉면에 제목을 표기했는데, 여기에는 본인 자료와 관련 없는 음악이나 뉴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사진문화연구소 목록집에는 선생과 관련된 자료만을 게재했다. 그리고 CD는 ‘임응식 작품집 배포용’으로 선생의 <풍모> 시리즈 142점과 다른 작업 79점이 아무런 정보 없이 일련번호만 매겨져 있다.

스크랩북의 경우, 적절치 못한 보존환경과 중성 대지가 아닌 일반종이 위에, 중성 접착제가 아닌 일반풀이나 테이프로 오랜 시간 동안 접착하여, 자료 손상이 부분적으로 발생해 있었고, 변색과 산화가 일정 부분 진행 중이었다. 한국사진문화연구소는 아직 중성 보존처리를 하지 못한 채, 모든 자료를 디지털 스캔했고, 아울러 영상과 음성 녹화물 역시 디지털 파일로 전환, 보관하고 있다.

한국사진문화연구소는 이번에 간행하는 ‘임응식 스크랩북 및 녹화물 총 목록집’에 뒤이어, 그것의 주요 자료들을 염선하여, 그 전문을 2015년 상반기에 또 다른 자료집으로 발간할 예정이다.